

# 중한사전의 용례 처리 문제

— 동사/명사 다품사어를 중심으로

장선우\*

---

## ◁ 목 차 ▷

---

- I. 머리말
  - II. 다품사어 용례의 문제
    - 1. 분석방법 및 대상
    - 2. 중한사전 용례의 문제
  - III. 처리 방안
    - 1. 전형적인 용법 수록
    - 2. 구/절 이상의 언어 단위로 제시
    - 3. 품사 정보 분리와 적합한 용례 제시
  - IV. 맺음말
- 

## I. 머리말

본 논문은 기존 중한사전의 용례가 품사 정보를 잘 반영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다품사어<sup>1)</sup>의 용례를 위주로 살펴보고 품사 정보를 잘 반영한 용례를 제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보일 것이다.

다품사어란 두 개 이상의 문법 기능을 갖는 단어를 가리키는데,<sup>2)</sup> 중국어는 형태

---

\* 덕성여자대학교 시간강사

1) '다품사어'라는 용어는 도원영(2002, 2010)에서 제안한 것인데, '다품사어가 어휘가 가지는 품사적 다면성을 단어의 차원에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 어떤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 범주로 기능함을 개별 단어의 어휘적 특성의 하나로 포착해 줄 수 있다는 점, 다의어와 궤를 같이 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에 동의한다. 중국어로는 兼類詞라 하는데, '검류사'(육검명 1993, 김현철 역), '검품, 검류'(임병권 2002), '검품사'(김현철 외 2007) 등으로 번역된 바 있다.

2) 呂叔湘(1979)은 다품사어를 판단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같은 조건에서 같은 부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고립어이므로 용례에서 다품사어의 문법 기능을 보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한국어의 동사는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어미가 붙어 활용을 할 수 있다. 용례에서 서술적 용법이 아닌 한정적 용법을 보여 주면 활용형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정보라 할 수 있다.<sup>3)</sup> 반면 중국어에서 동사 용례에 수식 구조의 중심어(피수식어) 용법을 제시하게 되면 명사와 용법이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他的走, 春天的到來’에서 ‘走, 到來’는 한국어로 ‘감, 도래’라는 명사형과 대응되나 중국어의 문법체계에서는 형태 변화 없이 체언의 중심어로 쓰인다. 중한사전에 동사의 용례로 제시된 용법과 명사에 제시된 용법이 같다면 학습자에게 품사 정보는 오히려 혼란을 줄 뿐이다. 특히 표제어가 동사/명사 다품사어인 경우 용례가 그 용법을 혼용한다면 용례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본고는 용례의 역할 중 ‘표제어의 가장 전형적인 용법’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먼저 중한사전에서 동사/명사 다품사어의 용례를 분석하여 품사 정보와 용례에 쓰인 용법이 일치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중한사전의 다품사어 용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다품사어 용례의 문제

중한사전 중에서 품사를 제일 먼저 표기한 것은 중국에서 출판된 《簡明漢朝詞典》(1986)(이하 《漢朝》)이다. 《漢朝》는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해 ‘품사 가림(確定詞

---

단어가 모두 같은 용법을 가지고 있으면 품사는 변하지 않는다. 같은 조건 하에 같은 부류의 단어가 다 같은 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때, 품사는 변한다(凡是在相同的條件下, 同類的詞都可以這樣用的, 不算詞類轉變: 凡是在相同的條件下, 同類的詞不是都能這樣用, 而是決定于習慣的, 是詞類轉變)’고 하였다. 陸儉明(1994)은 이를 기초로 다품사어의 판단 기준을 ‘동일성 원칙, 상대성 원칙, 비율의 원칙’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 3) 한영균(2006: 299)은 ‘국어의 용언은 대부분이 限定的 用法과 敘述的 用法 두 가지를 모두 가지기 때문에, 用例의 提示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따라서 한 항목에 최소한 둘 이상의 용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性)을 할 때 한 부류의 단어가 다른 부류의 단어들과 어떻게 결합되는가, 문장에서  
의 단어의 기능, 단어의 의미와 단어의 변화는 어떠한가 하는 등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동사/명사 다품사어 판단 기준도 아래와 같이 밝혔다.<sup>4)</sup>

(1) 동사와 명사

① 형태와 발음이 같지만 확연히 두 개 품사로, 즉 동사와 명사로 갈라질 때는  
두 개 품사로 표시했다.

예: 鎖(動) 잠그다. |把箱子鎖上; (名) 자물쇠. |一把鎖。

② 동사는 일반적으로 주어와 보어로 될 수 있다. 그렇다 하여 동사에다 모두  
《(名)》이라고 표시할 수는 없다. 동사는 일반적으로 규정어로도 될 수 있다.  
그렇다 하여 동사에다 모두 《(形)》이라고 표시할 수는 없다.<sup>5)</sup>

③ 어원으로 볼 때는 《(動)》이지만 현대 중국어 중에서 이미 사물의 수효를 나  
타내는 단위명사의 수식도 받고(최소한도로 《種》,《項》,《套》,《宗》 등 사물의  
수효를 나타내는 단위명사의 수식을 받는다.) 일반 형용사나 명사의 수식도  
받는 것은 《(動)》과 함께 《(名)》이라고 밝혔다.

예: 《鬥爭(動)(名)》, 《教育(動)(名)》

(1-①)은 동음이의(同音異義)어에 해당하며 두 개의 품사로 나누고 다품사어로  
보지 않았다. (1-②)와 (1-③)은 두 기능이 다른 성질일 때, 그 부류의 거의 모든  
단어가 두 기능을 다 가지는 경우는 단일 품사로(②의 경우), 두 기능이 전혀 다른  
성질일 경우는 다품사어로(③의 경우) 분류하고 있다.<sup>6)</sup> 《漢朝》의 출판 연도가  
1986년인 것을 보면, 그 당시 중국어학계의 품사 체계<sup>7)</sup>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漢朝》이 소사전이고 용례가 많지 않아 용례에 품사체계를 반영  
하였는가를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편찬된 중한사전의 용  
례를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4) 맞춤법이 현재와 다른 것을 수정하였다. (《漢朝》說明 9-10쪽 참고)

5) 현재와 문법 용어가 다른 부분이 있다. 보어는 중국어 지침에 賓語로 되어있는데 목적어  
에 해당한다. 규정어는 定語로 한정어에 해당한다.

6) 이 같은 처리 방식은 陸儉明(1994)의 다품사어 판단 기준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  
①은 동일성의 원칙, ②는 비율의 원칙, ③은 상대성의 원칙이다.

7) 胡明揚(1996: 37-48)은 중국어 품사 연구가 1980년대 이후에 비로소 어느 정도 일치  
된 준과 관점이 마련되었음을 밝혔다.

현재 국내에 출판된 대표적인 중한사전 중에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중한사전》(2002)(이하 《고려》), 진명출판사의 《진명중한사전》(2001)(이하 《진명》), 교학사의 《현대중한사전》(2006)(이하 《교학》), 두산동아의 《프라임 중한사전》(2002)(이하 《동아》)과 민중서림의 《옛센스 중한사전》(2001)(이하 《민중》) 등 5종과 중국에서 출판된 《중조대사전》(2009)(이하 《중조》)을 분석 대상으로 살펴보았다.<sup>8)</sup>

앞서 소개한 《漢朝》와는 달리 위 6종 사전의 일러두기에는 품사를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표기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다품사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또한 용례를 선정함에 있어 문법성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다품사어의 용례가 문법 정보를 잘 따르고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 1. 분석방법 및 대상

본 절에서는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 용례의 문법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학습용 어휘를 분석하였다.<sup>9)</sup> 《現代漢語詞典》(이하 《現漢》)에서 이음절 동사/명사 다품사어 33개, 이음절 동사 99개를 수집하고 중한사전에서 해당 단어의 용례를 분석하였다.<sup>10)</sup>

現代漢語 詞典 《現漢》 2005년	품사 <sup>11)</sup>	고려대 중한 《고대》 2002년	진명 중한 《진명》 2001년	옛센스 중한 《민중》 2001년	프라임 중한 《동아》 2002년	현대 중한 《교학》 2006년	중조 대사전 《중조》 2009년
[V] 99개	[V]	52	57	48	47	86	82
	[V]	16	22	27	36	13	16

8) 《중조대사전》(2009)은 초판이 중국어 이언어 사전 중 가장 먼저 출판(1984)되었으며 그 후에 편찬된 중한사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9) 《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2001) 갑 등급의 총 어휘 1,033개 참고.

10) 아래 표는 장선우(2012: 227)를 재인용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어휘 수집 대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사와 명사 외 다른 품사와 통용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現漢》의 동사를 분석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現漢》에는 동사로만 표기되어 있는 표제어가 중한사전에서는 다품사어로 처리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現代漢語 詞典 《現漢》 2005년	품사 <sup>11)</sup>	고려대 중한 《고대》 2002년	진명 중한 《진명》 2001년	옛센스 중한 《민중》 2001년	프라임 중한 《동아》 2002년	현대 중한 《교학》 2006년	중조 대사전 《중조》 2009년
	[N]						
	[V/N]	31	20	23	16		
	기타			(1)			(1)
[N][V] 33개	[V]		1			1	
	[V]	21	26	21	27	32	30
	[N]						
	[V/N]	11	5	9	5		
	기타	1	1	1(2)	1		1(2)

위 표에서 《現漢》의 [V] 99개와 비교하여 중한사전에서는 절반가량을 다품사어로 분류하고 있다. [V/N]로 표기한 경우도 다품사어에 포함한다.

《現漢》의 다품사어 [N][V] 33개에 대해서도 《교학》과 《중조》를 제외한 중한사전 4종에서 [V/N]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었다.

주지하듯 중국어의 동사는 주어나 목적어 위치에 있어도 형태상으로는 명사와 구분이 없는 경우가 있다. 중한사전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한국어로 뜻풀이 하여, 명사와 동사 둘 다 가능한 경우 부분적으로 다품사어로 처리하고 있다.

문제는 수록된 용례를 살펴보면 동사 항목에 명사와 같은 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둘 중 한쪽 항목에 용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또한 합성어도 용례에 수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現漢》에는 없던 명사와 동사를 같은 의항에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때에도 용법을 혼용하여 제시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볼 것이다.

11) 명사와 동사를 각각 [N]과 [V]로 표기한다. 명사와 동사가 한 의항에 함께 표기된 경우는 [V/N]로 표기한다. 품사 항목 중 '기타'는 명사 혹은 다른 품사로 표기되었거나, 사전에 미등재된 단어 수이다.

## 2. 증한사전 용례의 문제

### 1) 용법을 혼용한 경우

위 표에서 보면 《現漢》의 동사[V] 99개와 대응되는 표제어 중 절반이 증한사전에서는 다품사어로 표기되었다(《교학》, 《중조》 제외). 그런데 동사와 명사 항목의 용례가 같은 용법을 제시하고 있다.<sup>12)</sup>

- (2) 【關心】 ㉠ (사람·사물에 대해) 마음을 쓰다. 관심을 보이다. ¶ 謝謝你的關心: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중》  
 【變化】 ㉠ 변화하다. 달라지다. ¶ 變化萬端 = 온갖 변화가 일어난다. — 《교학》
- (3) 【開始】 ㉠ 첫시작, 시작, 개시 || 我們的工作只不過剛剛~ 우리 일은 첫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 《중조》  
 【表揚】 ㉠ 표창하다, 널리 칭찬하다 || 清潔衛生成績好的都受到了~ 위생문화사업을 잘 한 단위는 다 표창을 받았다 — 《중조》
- (4) 【同意】 ㉠ 동의(하다). 승인(하다). 찬성(하다). 「我的意見你同意嗎?: 나의 의견에 동의하느냐?」「我不同意你的意見; 나는 너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區委會同意你們的要求; 구 위원회는 당신들의 요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한다」「得到全体一致同意;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다」「取得對方的同意;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내다」 — 《고려》

예문 (2)는 동사 항목의 용례에 서술적 용법이 아닌 것을 수록한 경우이다. ‘關心’ 용례에 대한 한국어 번역이 서술적으로 ‘염려해 주셔서’라고 풀이되지만 수식 구조의 피수식어 ‘...的關心(...의 관심)’로 쓰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동사 용법이라 하기 어렵다. 뒤에 목적어를 써서 ‘謝謝你關心著我(저를 염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 하는 것이 동사 용법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變化㉠’은 동사인데 용례 ‘變化萬端(온갖 변화가 일어난다)’에서 명사처럼 쓰인 용법만 수록되어 있다. 다품사어인데 동사 항목의 용례가 서술적 용법이 아닌 경우 명사와의 구분이 모호해

12) 예문에는 본 연구와 관련된 표제어, 품사, 용례 정보만 제시하며 본 논의와 관련이 없는 의향, 기타 발음 및 주의 등 정보는 생략한다.

질 수 있다.

예문 (3)은 명사 용례에 서술적 용법이 있는 경우이다. 명사 '開始<sup>2</sup>'의 용례 '只不過剛剛開始(우리 일은 첫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에서 '剛剛'은 부사로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 없다. 때문에 '剛剛開始'를 명사 용례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表揚'의 용례에 대한 번역이 '표창을 받다'라고 풀이되지만 '受到'는 동사를 목적으로 삼는 동사이다. 그 밖에도 '進行, 有, 作, 受, 遭到, 加以, 予以, 給予'<sup>13)</sup> 등은 연관어로 부적합하다. 다른 예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는 동사 '聯繫(연계하다)'의 용례로 '有聯繫(관계가 있다)'(출처 《진명》)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명사 '幫助(도움)'의 용례로 '有幫助(도움이 된다)'(출처 《동아》)를 들고 있다.<sup>14)</sup> 같은 동사 '有'의 목적으로 쓰였는데 어떤 것은 동사이고 어떤 것은 명사라 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연관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 품사의 용례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문 (4)는 품사 정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용례에 제시된 용법까지 애매해진 경우이다. 여러 개의 품사 정보가 한 의항에 제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수록된 용례에 보이는 용법이 일관성 없이 나열되어 있다. '同意'는 ㉠ 순서로 품사를 표시하였는데 명사 용법 '得到同意, 取得同意'가 서술 용법 뒤에 수록되었다. 용법에 따라 품사를 서로 분리해서 배열하는 것이 용법을 더 명확히 보여 줄 수 있다.

## 2) 문맥이 모호한 경우

도원영·범기혜(2011)는 중한사전의 용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문법성, 적절성, 체계성, 효율성' 등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그중 문법성과 관련해 용례는 표제어의 정확한 사용 문맥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 문맥이 모호한 용례를 수록하는 것은 학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중한사전에서는 합성어나

13) 郭銳(2002)는 이와 같은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동사의 문법 기능이므로 명사로 보지 않는다.

14) 용례 원문은 다음과 같다. '這跟你的工作有聯繫(이것은 너의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這對於研究文化史很有幫助(이것은 문화사 연구에 아주 도움이 된다)'.





「照片片; (한 장 한 장의) 사진」 「照相排版; 사진 식자」 「著色照相; (흑백 사진에 색을 칠한 구식의) 착색 사진」 「彩色照相; 컬러 사진 = 有色照相 = 五彩照相」 — 《고려》

- (9) 【教育】 〇명동 교육(하다). 「教育方針; 교육 방침」 「教育明星; 교육계의 걸출한 인물」 「教育愛; 교육애」 「教育部; 교육부」 「教育工作人員; 교직원. 교육 관계자」 「教育經濟學; 교육 경제학」 「教育局; 시(市) 또는 현(縣)의 교육 행정기관」 「教育媒體; 교육 매체」 「教育社會學; 교육 사회학」 「教育實習; 교생 실습」 「教育統計學; 교육 통계학」 「教育心理學; 교육 심리학」 「教育行政; 교육 행정」 「教育銀行; 교육 은행」 「教育哲學; 교육 철학」 — 《고려》

예문 (7)은 동사/명사 다품사어의 동사 항목에 합성어나 명사구가 용례로 있는 경우이다. 동사 ‘集合’의 용례로 ‘集合地點, 集合號, 集合體, 緊急集合’ 등 합성어와 명사구가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용례는 동사 용법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정작 명사 항목에는 용례가 없다. 동사 ‘廣播’에는 서술 용법이 하나도 없이 합성어나 명사구 용례만 수록하였다.

예문 (8)은 동사/명사 다품사어의 명사 항목에 합성어나 명사구가 용례로 있는 경우이다. 명사 ‘照相’의 용례로 합성어와 명사구가 뒤섞여서 다량으로 제시되었다. 이미 단어로 굳어진 표현인 ‘照相機, 照相鏡, 照相館, 照相術, 照片片’은 표제어로 수록할 수도 있으며, 결합 구조의 위치에 따라 ‘照相’이 앞에 놓이는 경우(수식 용법) ‘照相的, 照相架子, 照相快鏡, 照相排版, 照相望遠鏡頭’와 뒤에 놓이는 경우(피수식 용법) ‘著色照相, 彩色照相’ 등을 분리하여 관련 정보로 보여줄 수도 있다. 특히 다품사어이면서 단어만을 용례로 제시하게 되면 용법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으며 언어 단위를 일관성 없이 나열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예문 (9)은 동사/명사가 한 의항에 묶여 있는 경우이다. 게다가 용례도 합성어 혹은 명사구만 제시되었다. 앞서 밝혔듯이 이러한 용례는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의 용법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더욱이 하나의 의항에 두 가지 품사 정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다른 예로 《진명》에서 ‘展覽(전시하다)’는 동사 항목에 용례로 ‘展覽館(전시관)’을, 명사 ‘照相(사진)’의 용례로 ‘照相館’을 들고 있다. 같은 ‘~館’인데 한 쪽에서는 동사 용례로 다른 한 쪽에서는 명사 용례로 사용되었다.<sup>15)</sup> 이와 같이 다품사

어에서 단어 단위의 용례를 제시하면 품사 정보와 일치하는 용법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특히 동사의 문법 기능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게 된다.

용례에 합성어나 명사구를 제시하는 것은 단일 품사 표제어의 문제이기도 하다.<sup>16)</sup> 본고에서 다품사어의 용례 문제로 합성어의 경우를 제시한 이유는 여러 품사가 함께 제시될 때 용법이 더욱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품사어에서 용례 선정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 3) 용례가 없는 경우

용례의 체계성은 표제어에 제시된 의향이 형식별 또는 유형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7)</sup> 용례가 없는 경우 또한 이에 해당하는데 특히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품사가 제시되는 다품사어에 용례가 없다면 해당 품사의 정확한 용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게 된다. 때문에 다품사어의 용례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아래는 일부 의향에 용례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두 의향 모두에 용례가 없는 경우를 예로 든 것이다.

- (10) 【演出】 ㉠ 공연. 상연. ㉡ 在中正紀念堂舉行首次演出 | 중정기념당에서 첫 공연을 거행하다. ㉡ 演出節目 | 공연 프로그램 ㉢ 공연하다. 상연하다 — 《진명》
- (11) 【跑步】 ㉠ 구보. 달리기. ㉢ 구보를 하다. 「跑步也來不及了; 구보를 해도 시간에 맞춰 갈 수 없다」 「跑步走; 뛰어 갖(구령)」 — 《고려》
- (12) 【預習】 ㉠ ㉡ 연습(하다). 「預習功課; 수업을 준비하다. 연습하다」 — 《고려》
- 【勝利】 ㉠ ㉡ 승리(하다). 「充滿了勝利的信心; 승리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勝利果實; 승리의 성과」 — 《고려》

15) 장선우(2012: 233-234)의 예를 재인용.

16) 張妍(2006)은 《現漢》의 용례 유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전형적인 동사 용법을 가진 '傳抄'(전사하다)의 용례로 단어 단위의 '傳抄本'(전사본)이 수록되어 품사 기능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17) 도원영·범기혜 <중한사전의 용례에 대한 사전학적 검토>, 《민족문화연구》 2011, 54호, 347-350쪽 참조.

(13) 【听寫】 ㉞ 받아쓰다 ㉞ 받아쓰기 — 《중조》

【發燒】 ㉞ 열이 나다. ㉞ 열감이 붉어지다. ㉞ ㉞ (병으로 인한) 발열.  
— 《고려》

예문 (10)은 동사 항목에 용례가 없는 경우이다. 동사 ‘演出’의 경우 ‘到農村演出(농촌에 가서 공연하다)’(《민중》)와 같은 서술 용법을 들어주어야 한다.

예문 (11)은 명사 항목에 용례가 없는 경우이다. ‘跑步’는 중한사전에서 다품사어로 표시를 하면서도 전형적인 명사 용법을 들지 못하고 있다. 다른 중한사전의 명사 용례를 살펴보면 ‘跑步對身體健康非常好(신체 건강에는 구보가 대단히 좋다)’(《동아》), ‘早上跑步, 對身體健康有好處(아침구보는 건강에 좋다)’(《진명》) 등 주어로 쓰인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품사어로 처리한 경우 전형적인 용법을 들어 주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단일 품사로만 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

예문 (12)는 품사 정보를 한 의항에 묶어 제시한 경우이다. 게다가 한 가지 용법만 수록하였다. ‘預習’에는 서술 용법만 있고, ‘勝利’에는 서술 용법이 없다. 품사 정보를 분리해야 하며 적절한 용례를 통해 상응하는 용법을 제시해야 한다.

예문 (13)은 명사와 동사 두 항목 모두에 용례가 없는 경우이다. 동사 ‘听寫’에는 ‘老師讓學生听寫(선생님이 학생에게 받아쓰기를 시키다)’(《동아》)와 같은 용례를 들어주고, 명사 의항에는 ‘一次特殊的听寫(특별했던 받아쓰기)’와 같이 수량사와 한정어의 수식을 받는 전형적인 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동사 ‘發燒<sup>㉞</sup>’은 ‘一感冒就發燒(감기에 걸렸다 하면 열이 난다)’와 같은 서술 용법으로 쓰인 용례를 들어주고 동사 ‘發燒<sup>㉞</sup>’은 ‘臉發燒(낮 뜨겁다, 얼굴이 달아오르다)’와 같이 연관된 단어를 제시하여 앞의 의항과의 의미도 구별할 수 있다. 명사 ‘發燒<sup>㉞</sup>’은 병으로 인한 열이므로 ‘出現發燒症狀(열 증세가 나타나다)’와 같은 용례를 제시할 수 있다.<sup>18)</sup>

### Ⅲ. 처리 방안

용례의 기능 중 문법성이란 표제어의 품사 정보와 일치되는 용법을 예를 들어 보

18) 장선우(2012: 237)의 ‘發燒’ 예를 재인용.

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앞 절에서 동사/명사 다품사어를 살펴본 결과 중한사전의 용례가 일정한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종종 보인다. 즉, 명사 항목과 동사 항목에 같은 용법이 수록되거나 언어 단위의 순서에 맞지 않게 나열되어 있다. 둘째, 사용 문맥을 알 수 없는 단어 단위의 용례가 제시되었다. 셋째, 한 의항에 두 품사를 묶어 제시하거나, 어느 한 쪽 품사에 해당하는 용례가 없다.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는 주요한 이유는 중국어에 형태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동사의 경우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주어나 목적어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사전의 용례는 해당 표제어가 가진 다양한 용법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중국어의 경우 다품사어에서 전형적인 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다른 품사와의 차별된 문법적 특성을 알 수 없게 된다.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은 조어법과 문장 결합의 방식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즉, 형태소가 모여 단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절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중국어 사전 용례로 합성어 혹은 명사구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동사 표제어가 다른 성분과 결합하여 명사 합성어가 된다면 그 동사의 전형적인 문법 기능은 나타낼 수 없다. 때문에 다품사어에 단어 단위를 용례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다품사어의 용례를 선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을 고려하여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전형적인 용법 수록

중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는 품사와 문장성분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어느 품사든 형태 변화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어떠한 문장성분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품사어로 제시된 어휘라면 동사와 명사의 용법이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어야 하며, 의미와 사용 제한에 따라 용례를 제시할 수 있다. 陸儉明(1994)은 품사의 분류는 단어의 문법 기능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분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sup>19)</sup> 이 기준에 따르면 동사는 서술

19) 陸儉明(1994)은 중국어의 품사를 기능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류하였는데 용언(동사와 형용사)을 아홉 번째로 먼저 가려내었다. '不, 很'의 수식을 받는다, '목적어(賓語), 보어(補語)'를 갖는다, '조사所'를 더할 수 있는가, '개사구(介詞結構)'의 수식을 받는다

용법을 전형적인 기능으로 하며, 명사는 수량사의 수식을 받는 중심어(피수식어) 용법이 전형적인 문법 기능이다.

이에 따라 중한사전의 표제어가 다품사어일 경우, 동사 항목의 용례로 서술 용법을 제시하고 명사 항목엔 주로 수식 구조에서의 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3) 【演出】 ㉸ 공연하다. 상연하다. ㉹ 演出各种精彩節目; 각종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공연하다. ㉺ 공연. 상연. ㉻ 他不顧九十高齡觀看了三場演出; 그는 아흔이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세 차례의 공연을 관람하였다.<sup>20)</sup>

예문 (13)에서 ‘演出’의 동사 항목에 서술 용법을 제시하였고, 명사 항목에서는 수량사 ‘三場’의 수식을 받는 중심어로 용례를 수록하였다. 가능하다면 해당 표제어가 가진 문법 기능을 모두 용례로 제시해야 하겠지만 중국어의 특성을 고려해서 동사의 전형적인 문법 기능인 술어 용법을 우선적으로 수록해야 한다.

위와 같이 동사/명사 다품사어로 표기된 어휘들 중 품사 분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동사로만 보는 이들도 있다.<sup>21)</sup> 중국어의 동사가 주어나 목적어, 한정어 등의 문장성분의 위치에 놓일 때 그것을 명사적 용법으로 볼 것인지 품사 자체를 명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일찍이 暫擬漢語教學語法系統(1956)에서 명물화(名物化)라는 용어를 쓰면서 다품사어 처리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품사 분류 및 다품사어 처리 문제는 사전의 품사 정보 처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한사전에 명시된 기존의 품사 정보를 토대로 용례에 존재하는 문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품사 분류 자체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삼을 것이다.

다만, 학습용으로서의 중한사전이 가능한 문법 기능을 고려하여 이러한 어휘들을

등의 문법 기능을 주요 용법으로 보았다. 명사는 열두 번째와 열세 번째로 가려내었는데 피수식어가 되는가,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가, 수사의 수식을 받는가(중국어의 명사는 수사의 수식을 직접 받지 못하고 중간에 양사가 수사의 수식을 받는다) 등의 문법 기능을 보았다.

20) 예문은 북경대학중국어언학연구중심 코퍼스(cc1)를 인용.

21) 陸儉明(1994: 32)는 다품사어로 처리하기에는 수량이 너무 많고 품사 체계도 복잡해질 수 있어 동사로만 처리하는 ‘비율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研究’는 ‘不研究’(연구하지 않는다)로도 쓰이고 ‘語言研究’(언어 연구)로도 쓰인다. 두 가지 문법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동사 중에서 ‘研究’처럼 명사 용법이 있는 단어의 수는 적지 않기 때문에 다품사어로 보지 않는다.

동사/명사 다품사어로 표기하였다면<sup>22)</sup>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용법은 가급적 피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進行, 有, 作, 受, 遭到, 受到, 加以, 予以, 給予’ 등은 기본적으로 동사를 목적어로 취하기 때문에 동사/명사 다품사어의 연관어로 부적절하다. 대신에 전형적인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取得, 舉行’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取得成績(성적을 거두다)’, ‘舉行婚禮(혼례를 치르다)’에서 ‘取得, 舉行’은 ‘成績, 婚禮’와 같은 전형적인 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이를 근거로 다품사어인 ‘勝利(승리(하다))’의 명사 항목에 ‘取得了徹底的勝利(확실한 승리를 거두다)’(출처 《교학》)처럼 품사 정보와 일치된 용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예로 ‘演出(공연(하다))’를 동사/명사 다품사어로 표기한다면 명사 항목에 ‘舉行首次演出(첫 공연을 거행하다)’(출처 《진명》)와 같은 용례를 제시할 수 있다.

중국어의 품사 체계는 분류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고 사전에서의 품사도 마찬가지로 사용 대상에 근거하여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의 용례는 반드시 명기된 품사 정보와 상응하는 전형적인 용법을 수록해야 한다.

## 2. 구/절 이상의 언어 단위로 제시

사용 문맥이 모호하여 용법을 제대로 알 수 없는 합성어 혹은 명사구는 동사/명사 다품사어의 용례로 부적합하다. 특히 동사가 합성어를 이룬다면 다른 성분과 결합하여 명사구를 형성하는 등의 조합 구조는 품사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용법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때문에 합성어나 명사구는 관련어로 표기하거나 표제어로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4) 【旅行】 ㉡ 여행하다. ㉢ 他一直希望能去非洲~ 그는 줄곧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

【旅行車】 ㉡ 승합차. 미니버스.

22) 姜自霞 외(2011)는 《現漢》의 동사/명사 다품사어를 분석하였는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에서는 단일 품사로만 표기된 어휘들이 기계 번역 혹은 외국어로서의 중국어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문법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다품사어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 【旅行袋】 ㉟ 여행 가방.
- 【旅行社】 ㉟ 여행사.
- 【旅行團】 ㉟ 여행단.
- 【旅行支票】 ㉟ 여행자 수표. — 《교학》

예문 (14)는 ‘旅行’과 관련된 표제어가 《교학》에 수록된 상황이다. 표제어 ‘旅行’의 용례로 술어 용법만을 제시하였으며, ‘旅行’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성어는 표제어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sup>23)</sup>

동사가 술어의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 문맥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합성어나 명사구를 용례로 수록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다만, 중국어는 형태소에서부터 문장에 이르기까지 그 결합 방법이 일치하기 때문에,<sup>24)</sup> 모든 가능한 합성어나 명사구를 표제어로 축출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조》에서 표제어 ‘生産’ 아래에는 무려 63개의 표제어가 ‘生産’으로 시작한다. 사전에서 이러한 어휘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의 하나는 상용어휘 목록을 작성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표제어로 올리는 것이다. 《現代漢語常用詞表》(2008)에 ‘生産’과 결합한 어휘 중 ‘生産方式’(10,641위), ‘生産工具’(19,064위), ‘生産關係’(7,153위), ‘生産過剩’(3,2558위), ‘生産力’(1,771위), ‘生産率’(16,348위), ‘生産線’(6,212위), ‘生産資料’(5,776위) 만이 순위에 있다.<sup>25)</sup>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합성어를 표제어로 선정할 수 있다.

사전의 용례에서는 품사 정보를 알 수 있는 결합 구조를 보여주어야 하며, 합성어나 명사구 단위의 어휘들은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표제어로 올리거나 부가 정보로 제시되어야 한다.

23) ‘旅行’이 수록된 다른 사전을 살펴보면 ‘旅行包, 旅行船, 旅行袋, 旅行團, 旅行杯, 旅行指南’ 등을 다른 용례와 함께 제시하거나 표제어로 축출하기도 하여 합성어나 명사구 처리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旅行’을 대표로 예를 든 것이며 앞서 지적했듯이 합성어 용례의 문제는 《現漢》과 중한사전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4) 朱德熙(1982)는 중국어가 단어에서 문장에 이르는 문법 구조가 ‘並列、偏正、述補、述賓、主謂’ 등 다섯 가지 방식으로 결합한다고 하였다.

25) 《現代漢語常用詞表》는 총 56,008개의 상용어를 수집하였으며, 순위가 높을수록 고빈도 어휘이다.

### 3. 품사 정보 분리와 적합한 용례 제시

마지막으로 중한사전이 가장 시급하게 수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품사어의 품사 표기 방식과 용례가 미수록된 경우이다. 다품사어로 분류하였다면 품사 정보는 두 의항으로 분리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용례 또한 그에 상응하는 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용례를 바르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중한사전에서 다품사어의 품사 정보가 한 의항에 제시된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어에서 일부 어휘들은 동사이면서 명사의 성질이 강하다. 李肖婷(2010)은 이러한 단어를 4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 (15) ㄱ. 도구를 나타냄 ‘鎖 鋸 鑽 鏟’  
 ㄴ. 사람을 나타냄 ‘編輯 導演 教授 參謀 領導’  
 ㄷ. 동작의 결과물 ‘報告 發現 設想 理解 決定 彙報’  
 ㄹ. 동작 자체 ‘研究 辯論 鬥爭 對比 合作 交流 整頓 準備’

이 분류에 따르면 (15ㄱ)와 (15ㄴ)의 경우 구체적인 도구나 사람을 나타내므로 동음이의(同音異義)인 두 개의 단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5ㄷ)과 (15ㄹ)의 경우 명사 용법의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두 개의 독립된 단어로 나누기는 어렵고, 동사로만 볼 것인지, 다품사어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중한사전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주로 ‘명사+하다’의 방식으로 뜻풀이를 하고, 품사 정보 또한 묶어 한 의항에 표기하고 있다.<sup>26)</sup> 주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거나 명사구를 이룰 때 한국어로는 명사형으로 대응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중한사전이라면 이러한 어휘들은 다품사어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품사 정보를 한 의항에 묶어 표기하고, 용례에도 전형적인 용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법 정보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중한사전 개정에서 필히 수정하고 전형적인 용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26) 대표적으로 《고려》에서 수집한 어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變化 表演 表揚 參觀 出發 發現 發展 反對 訪問 複習 感謝 繼續 建設 結束 考試 咳嗽 聯系 旅行 上來 生產 勝利 使用 討論 聽寫 同意 休息 學習 演出 研究 預習 展覽 比賽 表現 翻譯 感冒 計劃 教育 勞動 生活 實踐 說明 要求 組織’.



그밖에 용례가 없는 표제어의 경우, 앞서 제시한 용례 수록의 원칙을 적용하여 적절한 용례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용례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위와 같은 용례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IV. 맺음말

본고는 중한사전의 용례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동/명 다품사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처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용례는 해당 표제어의 다양한 용법을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어는 형태 표기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품사이면서 서로 같은 문법 기능을 갖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전에서는 품사 정보에 해당하는 가장 전형적인 문법 기능을 보여주는 용례를 제시해야 한다. 그 밖의 용법에 대해서는 관련어 혹은 문법 정보 등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품사 정보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단어 단위의 용례는 피하고, 구절 혹은 문장 단위의 용례를 통해서 다품사어의 용법을 제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용례가 표제어의 용법을 보여주기 위한 근거로 제시되는 품사 정보 및 의항 등 관련 정보의 처리가 적합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중한사전의 용례가 문법 기능을 보여주는 역할을 바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법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품사를 일관된 원칙에 따라 분류해야만, 용례도 그 원칙에 부합하는 용법을 보여줄 수 있다. 현재 중한사전에서의 품사 분류 및 다품사어의 처리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김현철 외 《중한사전의 사전학적 연구》 지식과 교양, 2012

- 도원영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품사 정보와 다품사어 처리에 관하여>; 《한국어학》 2010, 47호
- 도원영·범기혜 <중한사전의 용례에 대한 사전학적 검토>; 《민족문화연구》 2011, 54호
- 범기혜 <중한사전의 품사 체계에 대한 고찰>; 《한국사전학》 2011, 제17호
- 육검명, 김현철 번역 <중국어 품사 분류에 관하여(關於漢語詞類的劃分)>; 《인문과학》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제 69-70 합집
- 육검명, 김현철, 박정구, 최규발 공역 <중국어어법 연구방법론(現代漢語語法研究教程)>; 차이나 하우스, 2007
- 임병권 <중국어 문법 용어로 본 학술용어 번역의 문제>; 《중국문학연구》 2002, 제25집
- 장선우 <중한사전의 다품사어와 용례 처리>; 《중한사전의 사전학적 연구》 김현철 외, 지식과 교양, 2012
- 한영균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에 대한 사전학적 검토—용언의 경우—>; 《국어학》 2006, 제48집
- 郭銳 <現代漢語詞類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2
- 方清明 <<現代漢語詞典>“動、名兼類”計量考察>; 《辭書研究》 2010年 第4期
- 胡明揚主編 <詞類問題考察>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6
- 姜自霞、丁崇明、侯燕 <<現代漢語詞典>(第5版)中的雙音節動名兼類詞>; 《辭書研究》 2011年 第3期
- 金媛熙 <<中韓辭典>實詞釋義研究> 北京大學 博士論文, 2004
- 李肖婷 <HSK初中等大綱動名雙音兼類詞考察>; 《鹹寧學院學報》 2010年 第2期
- 陸儉明 <關於詞的兼類問題>; 《中國語文》 1994年 第1期
- 陸儉明 <對“NP+的+VP”結構的重新認識>; 《中國語文》 2003年 第5期
- 呂叔湘 <漢語語法分析問題> 北京, 商務印書館, 1979
- 呂叔湘 <關於漢語詞類的一些原則性問題>; 《漢語語法論文集》 1999年印版
- 馬建忠 <馬氏文通> 北京, 商務印書館, 1983年版
- 袁毓林 <詞類範疇的家族相似性>; 《中國社會科學》 1995年 第1期
- 朱德熙 <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1982年, 又見《朱德熙文集》 第1卷, 北京: 商務印書館, 1999年

[참고 공구서]

- 강식진 외 공편 <進明 中韓辭典> 서울, 진명출판사, 2001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 <中韓辭典(전면개정판)>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 박영종 편 <現代中韓辭典> 서울, 교학사, 2006

- 손예철 편저 《東亞 Prime 中韓辭典》 서울, 두산동아, 2005
- 편집부 편 《옛센스 중한사전(제3판)》 서울, 민중서림, 2002
- 최봉환 외 편 《중조대사전(中朝大詞典)》(2版), 조선외국문도서관사 및 중국민족출판사, 2009
- 北京語言學院延邊人民出版社《簡明漢朝詞典》編寫組《簡明漢朝詞典》商務印書館, 1986
- 國家漢語水平考試委員會辦公室考試中心 制定《漢語水平詞彙與漢字等級大綱》經濟科學出版社, 2001
- 中國社會科學院研究所詞典編輯室 編《現代漢語詞典》(第5版) 商務印書館, 2005
- 《現代漢語常用詞表》課題組《現代漢語常用詞表(草案)》商務印書館, 2008

## 【中文提要】

本文考察了中韓辭典對動名兼類詞的配例問題, 並提出了配例收錄的原則。

由於漢語缺乏形態標記, 動詞也可不借助任何標記比較自由地充當主語或賓語。其中有些詞可看做是動名兼類詞。這些動名兼類詞在中韓辭典配例上存在一些問題, 分爲四種: 一、用法混雜。動詞義項的配例中有主賓語用法, 或者名詞義項的配例中有述語用法; 二、無法分辨詞語的語法功能。如果配例是複合詞或名詞短語, 從中就看不出詞語的主要用法; 三、沒有配例。不提供例證, 很難分辨兼類詞的用法; 四、一個義項標兩個詞性。

爲此本文提出了配例處理原則。

首先, 應該將典型用法作爲配例。雖然漢語詞性和句子成分不是一對一的關係, 動詞比較自由地充當主賓語。但是也可以按一定的步驟逐一劃出詞類。比如, 動詞可受到副詞“不”等的修飾, 或後邊帶有補語等的補充成分, 而名詞可受到數量詞的修飾等。因此動名兼類詞更要嚴格遵守這些典型用法當做配例。

其次, 配例應當是由詞和詞組合成的短語以上的語言單位, 而不應該組合後還是詞。漢語由於構詞和詞組的構成方式相同, 有時不好劃出語素和詞、詞和詞組的界限。然而動詞義項尤其不適合收錄這些複合詞或名詞短語作爲配例。這些複合詞可以按一定的處理原則, 附加爲相關信息或單列爲標題詞。

最後, 一個義項只標一個詞性。由於漢語一些動詞可充當主賓語, 對應的

韓國語可以用名詞性的成分對譯。但是一個義項裏面有兩個詞性，而且配例也不典型，那麼“兼類”這一語法信息變得毫無意義。

雖然理想的配例要給出詞語各種各樣的用法，但由於漢語缺乏形態標記，兼類詞的配例要嚴格挑選。總而言之，正確的例證來自於正確的語法描寫。本文只考察了中韓辭典已有的動名兼類詞配例問題，而對詞類本身的劃分標準有待更深入的研究。

### 【主題語】

中韓辭典 兼類詞 配例 語法功能 複合詞

투고일: 2012. 3. 26 / 심사일: 2012. 4. 22~5. 5 / 게재확정일: 2012. 5. 10